

대한세일링(요트)연맹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개선 사항

□ 단체명 : 대한세일링(요트)연맹

□ 운영개선(전국체육대회)

대회명	구 분	현행	개선(안)	사유
전 국 체 육 대 회	종목신설 (여자부)	- (선수4명) (1인승), 윈드서핑급(1인승) 420급(2인승)	- 고등부(선수5명) - 1명 여자부 레이저급(1인승), 윈드서핑급(1인승), 420급(2인승) 종목신설(여자부) (1인승) (또는 윈드서핑)	<p>□ 종목신설(여자부 - 고등부, 일반부)</p> <p>- 요트는 여자 참가종목이 없는 유일한 영역으로 올림픽현장의 남녀 평등의 이념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중국과 일본 여자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획득사례로 볼 때 우리 또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국 체전에 여자부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실업팀과 대학팀이 만들어지고 초/중/고/대/일반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선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수급이 이루어 질 것임.</p> <p>- 요트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남자부(50%), 여자부(50%) 절반을 차지함에도 전국체전 요트종목에 여자부가 별도로 없기에 여자선수 생명이 끊김에 따라 지속발전 가능한 여자선수 육성방법이 없음</p> <p>- 초등부에 여자선수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후 중학교 입학하면서 고등부에 여자종목이 없어 포기하는 선수가 많고 고등부, 대학/일반부가 없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p> <p>□ 참가인원 증가</p> <p>- 여자부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고등부 1명, 일반부 1명)</p>
		- 일반부(선수 6명) 레이저급(1인승), 윈드서핑급(1인승), 470급(2인승))	- 일반부(선수 7명) -1명 여자부 레이저급(1인승), 윈드서핑급(1인승), 470급(2인승) 종목신설(여자부) (1인승) (국제레이저레디얼급 또는 윈드서핑)	
	종목변경 (호비16급 ↓ 49er급)	- 일반부(선수 2명) 호비 16급(2인승)	- 일반부(선수 2명) 49er급(2인승) (인원변동 없음)	<p>□ 종목변경 요청</p> <p>- : 대한체육회 이사회(2016. 1. 27.)에 전국체전 평가회에서 “요트종목 호비16급(2인승)을 49er급(2인승)으로 변경에 대해서 2016년~2017년까지 예고제로 진행하고 2018년에 49er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한다.”결정.</p> <p>2014년 아시아연맹(ASAF)연차총회에서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호비16 종목이 빠지고 대신 현 올림픽 종목인 49er로 변경됨을 회의에서 결정.</p> <p>- 요청사항 : 2년 유예(2016~2017)된 49er급 종목을 2017년부터 전국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호비16급 → 49er급 변경 요청)</p>

□ 운영개선[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명	구 분	현행	개선(안)	사유
전 국 (소년) 체 육 대 회	종목분리 (단체전 ↓ 개인전)	<p>(선수 5명) 중등부1명 여자 중등부1명 옵티미스트급 단체전 (시도당 3명으로 구성하며 여자선 수1명이상 포함해야함)</p>	<p>옵티미스트급(선수 5명) 남자 중등부1명 여자 중등부1명</p> <p>종목분리 옵티미스트급 단체전(3명)→ 개인전(3명) 남자 초등부 1명 여자 초등부 1명 중등부 레이저4.7급(오픈) 1명 (인원변동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티미스트 초등부 신설로 각 시도 초등학교부 창단과 안정적인 선수 육성기반 확보 - 체계적으로 교육된 유망주 선수들이 향후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로 배출 기대. -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사업에 요트종목의 지원을 앞당길 수 있는 기틀 마련. - 유소년 종목의 신설(2011년 전국소년체전 정식종목)로 인하여 각 시도 중등부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초등부가 없어 초등학교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98년 아시안게임 이후 유소년 종목인 옵티미스트급에서 금메달이 없었지만 2011년 소년체전 중등부 신설로 선수층이 많아져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하였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옵티미스트 남·여, 레이저4.7(중등부)종목이 있어 유소년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주요 요트 선진국에서도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선수권대회 등 국제무대에서의 유소년 선수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신체성장이 빠른 유소년 선수들의 체격조건에 알맞은 종목 선정이 필수이며, 아시안 게임에 있는 레이저 4.7급, 유스올림픽에 있는 윈드서핑급(테크노293)으로 종목의 다양화로 선수 육성 필요(체격의 변화 - 성장기) <p>□ 종목분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티미스트급 종목 분리(단체전 3명 → 개인전 3명) 단체전(옵티미스트 3명 출전) → 개인전(옵티미스트 초등부 남/여 각 1명, 레이저4.7 중등부 오픈 1명) <p>* 레이저4.7급은 2018년 아시안게임정식종목으로 채택(2014년 결정)</p>

※ 전국체전에 여자부 신설과 전국소년체전에 초등부 신설에 따른 추진배경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인지하면서 중앙연맹, 전국 시도연맹 및 전국단위 연맹체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공감·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요트발전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 스포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요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요트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한 인식과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요트 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루어내어 요트를 통한 국위선양과 온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에서 보았듯이 아시아를 평정하고 그 기세를 몰아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0년 동경올림픽 경기 등 세계대회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육성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여자부를 신설하고, 그 근간이 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초등부(옵티미스트 종목), 중등부(레이저4.7, 윈드서핑)를 추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

- IOC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6년 남녀 평등원칙 조항을 올림픽 헌장에 채택함으로써 1960년 로마올림픽의 여성 참여율이 11.5%이던 수준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는 42% 수준까지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켰으며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여자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올림픽 26개 종목은 모두 남녀의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국 미국은 지난 런던올림픽에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남자선수보다 여자선수가 더 많이 출전(여성 269명, 남성 261명)하여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아시안게임 역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출전의 기회만큼은 남녀 차별적인 종목 운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트종목은 올림픽 금메달 10개(남자 5개, 여자 5개)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14개(남자 7개, 여자 7개)로 여자선수의 메달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요트종목에서 올림픽 메달획득 7개(금 3, 은 2, 동 2)중 남자 1개(동 1개), 여자 6개(금 3, 은 2, 동 1)로 여자부의 올림픽 메달획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홍콩의 윈드서핑 여자부에서 금메달 획득,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중국의 레이저레디알 여자부에서 금메달 획득)

올림픽 종목 중 전국체전에 여자부가 없는 종목은 럭비와 요트뿐이며 수상종목(조정, 카누, 근대5종, 핀수영, 수상스키)중 요트만이 여자부가 없습니다. 여자부가 절반을 차지함에도 전국체전 요트종목에 여자부가 별도로 없기에 여자선수 생명이 끊김에 따라 지속발전 가능한 여자선수 육성방법이 없으며, 요트는 여자 참가종목이 없는 유일한 영역으로 올림픽 현장의 남·녀 평등의 이념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중국과 일본 여자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획득사례로 볼 때 우리 또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국체전에 여자부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실업팀과 대학팀이 만들어지고 초/중/고/대/일반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선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수급이 이루어 질 것임.

이러한 국제 스포츠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 종합 5위의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제무대에서 장미란, 김연아, 이상화 등 여자선수들이 많은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에 요트는 소년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 종목에는 여자종목이 있으나 전국체전에만 여자종목이 없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발굴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선수육성 체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중도에 선수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전국체전에는 남녀 구분 없이 경기하는 오픈종목은 남성과 여성의 체력적인 조건의 차이가 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승마 종목만을 올림픽에서는 유일하게 오픈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체전에서 요트경기 7종목 전부를 오픈종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성이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인기종목 일수록 전국체전 경기종목의 존재 여부가 직업선수로의 진출과 생계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업팀이 육성하는 야구, 축구 등 인기종목에 비하여 전국체전은 총 47개 종목에 30,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여 각 시도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는 종합 경기대회로서 국민적 관심이 적은 비인기 종목을 각 시도가 지원 육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종목이 있느냐 보다 전국체전에 경기종목이 존재 하느냐가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끊임 없이 여자종목 채택에 대하여 민원과 탄원서(학부모)등 개선요구를 계속하였으나 여자 등록선수가 적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단 하나의 여자종목이 없기에 일선학교 및 각 시도는 여자 선수를 육성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골프가 고급스포츠로써 급속히 대중화 되었는데 향후에는 요트와 승마가 그 자리를 대신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정부는 2010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과 2015년 마리나 이용 관련 법안 등 2019년까지 전국43개소에 마리나 항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해양레저산업을 미래를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전망하고 경쟁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투자하고 있으며, 소형 요트도 전국대회를 비롯하여 새로운 대회(지역대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요트 종목도 여자부 신설을 통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향후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